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2017년 자율관리 공동체 컨설팅 본격 추진 4월 한달간 전국 135개 공동체 컨설팅 실시



지난 4월부터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5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석천리공동체 회원들이 천명길 컨설턴트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금년도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업회는 지난 3월 말 자율관리 지역별 컨설턴트 21명을 새로 위촉해 4월부터 활동에 돌입, 4월 한달간 전국 135개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올해의 경우 자율관리어업에 참여는 하였지만 그동안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원관리 및 의식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는 올해 800여 공동체를 2~3회(도시지역은 1회) 방문해 컨설팅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

도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 자원관리(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 안전관리(어선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 경영관리(재무, 브랜드·포장지·상표개발, 특허 등)를 비롯,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는 한국수산업회로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 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한국수산업회 자율관리팀(02-589-4604, 4609) 또는 관할 지역컨설턴트에게 문의하면 된다.

일본에서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외국의 수산자원관리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5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간 일본의 수산자원 조성관리 등 수산업 정책현장을 시찰하는 연수기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2면>

이번 1차 일본연수에 이어 오는 9월

에는 북유럽의 선진수산국가인 노르웨이, 10월에는 대만에서 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연수 참여 어업인은 1차의 경우 신규공동체 어업인 12명, 2차와 3차는 우수공동체 어업인 각 1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 평가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지자체 등의 예비평가를 마치고, 조만간 시도 지역협의회 평가가 마무리되면 6월부터 해수부 주관의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평가는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전자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공동체 현지 점검을 통해 확인한 후 평

가위원회를 열어 평가점수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동체 현지 점검은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모범등급 중 해수부에서 선정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오는 6~7월경 지자체 공무원, 지역담당 컨설턴트 등 2~3명이 한 조를 편성해 실시한다.

한편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관련 우수공동체 선발 및 지원 평가방법 개선요구 등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제5회 바다식목일 '건강한 바다 가꾸기 행사' 개최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5개 기관, 부산 기장군에서 수중·해안가 정화활동



제5회 바다식목일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려 '건강한 바다 가꾸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진은 5월 10일 일광해수욕장에서 열린 행사모습.

해양수산부는 5월 10일 제5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5회째인 올해에는 '함께 만드는 숨쉬는 바다'를 주제로 해양수산부와 수산자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진행하는 지역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5월 10일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 주관으로 부경대, 한국해양대, 이천어촌계 등 120여명이 참석해 바다숲 조성지의 수중환경

과 휴가철을 앞둔 일광해수욕장 일원에 대한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5월 12일에는 충남 서산에서 신현석 어업지원정책관이 참석하여 잘피심기 행사를 가졌으며, 여수와 부산에서도 해조류 심기 활동과 더불어 바다정화활동을 펼쳤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식목일을 기념해 수산자원 보존에 힘쓴 유공자 10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올해는 제주 위미1리 어촌계의 현승호 어촌계장이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남대천 회귀연어를 활용하여 의약품 제품(점안액)의 원료를 추출한 (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정상수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받았다.

“내가 지켜줄게, 우리 바다야”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넓은 바다라도 막 쓰면 안 돼요.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청소하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의 첫걸음입니다.

넓은 바다라서 혼자선 안 돼요.
해양수산부가 확산운동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넓은 바다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우리 모두가 바다를 아끼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꿈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 어장환경개선, 불법어업 방지를 실천하는데 자율관리어업이 있습니다.

www.jayul.go.kr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업회 및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 일본

일본의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물 유통현장 등 견학

금년도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현)에서 진행됐다. 연수단은 지난해 신규가입한 공동체 대표 12명을 포함,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수단은 일본 큐슈의 관문이자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후쿠오카를 비롯, 나가사키, 사가현 등의 수산연구소와 수산시장, 해상낚시공원 등을 둘러보고 우리 어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먼저 나가사키시의 수산기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수산기술센터는 전복을 전락품종으로 육성중이며, 큐슈와 홋카이도산 전복을 활용한 교잡육종으로 내병성, 고성장 품종 개발에 주력해 현재 3세대까지 생산하고 있다. 수정란부터 5cm 가량 성장시키는데 2년 정도가 소요되며, 50%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고 이곳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 종묘생산 품종은 전복을 비롯, 피조개, 복어, 전갱이 등이며, 모든 종묘는 방류용 및



금년도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연수가 5월 15일부터 4박5일간 일본 큐슈지역에서 진행됐다.

양식장 입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후쿠오카 최대 수산시장인 나가하마 수산시장. 1955년 건립된 이 시장은 전국 굴지의 선어 도매시장으로 모든 수산물은 규격화된 어상자를 이용해 경매장에 진열하고, 진열된 어류는 질서있게 경매사의 인도에 따라 경매가 이뤄지며, 경매결과 가격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인근 하카다 어항을 통해 수시로

수산물이 반입돼 연간 20여만톤을 취급하지만 우리와 달리 위판장 전체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후쿠오카 해상낚시공원은 1985년 후쿠오카시에서 6억엔을 들여 마련한 후 어업협동조합으로 관리했다. 낚시공원 주변에는 시에서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등 어류 서식어장으로 조성해 지금은 연간 7만여명이 방문하는 후쿠오카시의 관광명소 중 하나이

다. 하카다만 먼 바다 400여m의 T자형 강철재 낚시부두로 한번에 400여명이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이용요금은 4시간 기준 1,000엔. 견학을 위한 일반 입장객에게는 200엔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사가현 가라쓰시 수산과 등 일본의 수산행정기관을 방문, 일본의 자원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인공어초 투하 및 종묘방류, 자원량 조사, TAC 설정 등 기반시설에 주력하고, 어업인들은 지역별 어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 설정, 그물코 제한 등을 통해 자원관리에 주력하고 있었다.

한편 연수에 참가한 어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일본 해외연수에 대해 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며, 일본 수산물의 위생적인 유통과 해안선 및 어항내의 청결함에 감명이 깊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자율관리형어업을 공동체 회원들에게 잘 전파하여 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후쿠오카시 해상낚시공원을 견학하고 있는 연수단.



▶ 나가사키 수산기술센터의 전복 종묘생산.



▶ 일본 수산관련 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



▶ 후쿠오카 어업현장 견학하고 있는 모습



▶ 후쿠오카시 해상낚시공원 전경.



▶ 청결한 모습의 후쿠오카 나가하마 수산시장.



▶ 연수단이 현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특별기고

자율관리공동체 육성과 수산자원관리

2001년 자율관리 육성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래 공동체와 참여 어업인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현재 공동체는 63개소에서 1,132개소, 참여 어업인은 5,107명에서 6만6,609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서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1~2014년 자율관리어업의 직접 효과는 약 863억원~1,142억원으로 최근 3년간 육성사업비 지원 연평균 예산 투입금액 235억원의 약 3.7배~4.9배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동체 위원장의 소통의 리더십 필요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불구하고 현재 자율관리어업 평가점수 1,000점 만점 중 500점 미만 공동체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공동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자율관리어업이 지속 발전하여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가점수 600점 이상 되는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의 70%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관리어업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율관

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가 맡고 있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무관심하거나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과연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의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부응은 물론 해당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발전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심분 발휘해 준다면 60점이 아닌 80점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위원장과 임원은 어느 때보다 더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한다. 기존 공동체 중 많은 지원을 받은 공동체는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등급 공동체 또는 신규 공동체는 자립 또는 선진공동체 진입을 목표로 정부의 자율관리 정책에 100% 부응하고 따라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촌발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길이라 여긴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주동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어업기술센터장

톤을 밑돌아 근년들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바다모래 채취, 주요하구 간척사업, 중국어선 불법 조업, 남획 등 어장과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18일 서해수산연구소 주관으로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

안전성센터에서 2017년 상반기 연구지도·어업인간 서해안지역 협의회가 있었다. 그 회의가 끝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서해수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어획량 감소 원인을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질소와 인의 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견해가 맞을 지도 모른다.

자원회복에 정부와 어업인 힘 모아야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획능력, 어획량과 어업구역 규제, 감시 감독 그리고 자율관리(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어장 조성 및 종묘방류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지만 계속해서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질소와 인이 부족해서 정말로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바다의 자연생태계가 안정된 상태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되도록 빨리 그리고 계획성 있는 자연생태계의 안정성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늘 생각하고 있던 사항인데 또 한가지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주요 강하구의 땅을 확보하거나 담수를 이용할 목적으로 서해와 남해안 등지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간척지에 대한 역간척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연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이미 간척사업으로 조성했던 대규모 간척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생태복원사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들도 미흡한 자율규약은 재정비하고, 그 규약을 잘 준수하여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드린다.

경남 수산인한마음대회, 남해서 열려

2500여명 참가, 경남 수산인 화합 도모



경남 수산인한마음대회가 5월 13일 남해서 2500여명의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영일 남해군수.

제6회 수산인의 날 기념 경남수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5월 13일 남해군장선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1일로 지정된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도내 수산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는 경남도수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남수산인한마음대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경남도, 남해군, 수협중앙회가 후원해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경남수산인'을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영일 남해군수를 비롯해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박동식 도의회 의장과 방태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등 수산단체 회원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회는 유공자 표창과 비전 선포 세리머니, 수산인 체육대회와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사단법인 제주도해녀협회' 공식 출범

초대회장에 서귀포수협 법환어촌계 강애심씨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창립기념식 2017. 4. 25(화) 11:00 제주 오리엔탈호텔 2층 연회장

제주도 해녀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식이 4월 25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렸다.

(사)제주도해녀협회가 지난 4월 25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창립총회

겸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협회장에는 지난 3월 발기인 모임 당시 창립위원장을 맡았던 서귀포수협 법환어촌계 강애심씨가 추대됐다. 부회장은 김영자(제주시수협 조천어촌계)씨, 사무국장은 고송자(제주시수협 고내어촌계)씨가 맡았다.

협회는 제주지역 전·현직 해녀 9,500여명을 회원으로 6개 지구별수협별로 지부가 결성됐다.

올 여름 해파리 대량출현 우려

해수부, 사전 대응체계 구축해 피해 최소화 주력

올 여름 해파리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파리 피해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해파리가 상습 출현하는 경남 자란만, 마산만에서 해파리 부유유생 분포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란만에서 100㎡

당 148개체가, 마산만에는 98개체의 밀도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부유유생은 6월 해파리 성체로 성장하는데 발생 밀도를 감안할 때 주의 경보가 발령될 전망이다.

이에 현재 실시중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정기모니터링 외에 어업인 30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모니터링단을 운영, 해역별 해파리 발생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제1회 민물고기 요리경연대회 개최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주관, 송어한입요리세트 '대상'



제1회 민물고기 요리경연대회 모습.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회 민물

고기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민물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 내수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 12팀이 출전해 송어, 민물장어, 자라, 향어, 메기, 동자개 등 6개 품종의 수산물을 선택해 요리를 선보였다.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한승연·이상준 씨의 송어한입요리 세트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오선희·오경화 씨의 자라젤리, 우수상은 우현·이지민 씨의 고추장소스 미나리 콘셉트 동자개가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은 강래식·김기숙 씨의 매운 향어 강정과 계절 장아찌, 송제승·박상현 씨의 송어 백김치롤과 샐러드케이크가 수상했다.

해수부, 어식백세 포장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동통신 거래(모바일 커머스) 등 상품 실물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는 쇼핑 유형이 증가해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대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어식백세 수산식품 포장

부분인 수산식품 분야는 디자인 전문성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참신한 수산식품 포장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디자인은 어업인·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신규창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의 응모분야는 비닐팩, 냉동진공팩, 종이상자 등 3개 분야이며, 모집 대상은 국내외 대학(원) 재·휴학생과 디자이너(디자인업체 포함)이다.

공동체 탐방 / 통영시 옥지면 서부 자율관리공동체

유료낚시터 조성으로 어업외 소득 향상 도모



조송주 통영 옥지면 서부 공동체 위원장

한려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고등어 양식의 주산지 통영 옥지도, 여객선으로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 20여분을 운항하면 여객선이 도착하는 옥지항에 서부 자율관리공동체가 위치해 있다.

옥지면 동항리 서촌, 중촌, 상촌 등 3개 자연부락 어업인들이 2009년 결성한 서부공동체는 현재 56명의 회원들이 마을어장에서 툫과 미역, 세모가사리 등 해조류를 채취하고, 여름철이면 작은 규모의 정치망 형태인 각망에서 멸치를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어, 참돔 등 어류 양식업에 종사하거나 자망과 통발어업을 하는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서부 공동체는 지난 2015년 2016년 2회에 걸쳐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자금 8천만원씩을 각각 지원받아 어장관리선과 낚시어선 접안을 위한 부잔교를 마련했다.

이곳 공동체의 마을어장은 22ha에 불과해 회원 수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편이다. 이에 따라 마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주말이면 1천~2천명씩 옥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료낚시터 운영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마을어장에 위치한 적도 인근어장에 최근 정부에서 자원조성 사업을 추진, 어족자원이 풍부해 공동체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옥지수협 전무로 정년퇴직 후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부진할 당시 서부공동체를 맡아 회원간 단합이 잘 되는 모범어



통영 서부공동체 조송주 위원장과 회원들이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촌계로 탈바꿈시킨 조송주 위원장은 “모든 회원들이 어장청소 등 자율관리 활동 때 단체복(조끼)을 착용토록 해 공동체의 동질감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위원장은 현재 마을어장에 있

는 적도를 활용해 어업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현안이지만 이 섬이 세월호 사건의 당사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소유로 돼 있어 어촌계에서 구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관계당국의 행정적 지원을 절실히 요청했다.

인터뷰

이기진 자율관리어업 경남연합회장

경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화합 도모

지난 4월 하순 경남지역 자율관리 공동체 지도자 20여명은 이기진 경남연합회장과 함께 태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 사례답사와 별개로 해마다 경남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해외연수는 지자체와 지역연합회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남해에서 열리는 경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는 경남지역공동체어업인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이 또한 경남에서만 유일하게 개최돼 관내 어업인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이 성공하려면 먼저 공동체 지도자의 책임감과 리더십,

회원들의 참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통영 옥지도 옥동산내공동체 위원장으로, 지난 4년간 경남관내 230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기진(62) 경남연합회장은 지자체 뿐 아니라 관내 국회의원실도 수시로 방문, 자율관리어업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을 호소하는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매진해 오고 있어 그 결실이 주목되고 있다.



500점 미만 공동체 대상 자율관리어업 활성화교육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5월 19일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열린 통영관내 활동부진 공동체 집합교육에서 김옥환 컨설턴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는 지난 5월 19일 500점 미만 활동부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수산기술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통영관내 20개 공동체 위원장 및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자율관리어업 평가점수가 낮은 공동체는 대부분 활동일지를 잘 작성하지 않거나 공동체 활동 내용을 일지에 기재하는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산회에서는 통영지역을 담당하는 김옥환 컨설턴트가 그동안의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컨설턴트는 이날 교육에서 공동체 활동부진의 원인으로 △공동체 위원장의 잦은 교체(자체 갈등) △위원장 리더십 부족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의식 부족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추가 사업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표, 활동일지 작성요령 등을 중점 설명하며, 자율관리어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